

王好古의 著書에 대한 研究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學敎室

金容辰¹ *

A Study on the Writings of Wanghogo(王好古)

Kim Yong-jin¹ *

¹Dep. of Oriental Medicine History, Daejeon University

Wanghogo(王好古) is a prominent doctor in Geum-Won(金元) Dynasty. He is also the inheritor of Jangwonso(張元素) and Igo(李杲) in study, and studied 『Hwangjenaegyong(黃帝內經)』, 『Sanghallon(傷寒論)』. So, he contributed to a later age. Although we have some researches of Wanghogo, but the researches in his books are insufficient as yet. More, the publication year of his books have some different views, so I tried to study this.

By this study, We can understand that Wanghogo published 『Uiruwonyung(醫壘元戎)』 which is for exogenous febrile disease and miscellaneous diseases in general plan of twelve meridians in 1297, 『Eumjeung-yangnye(陰證略例)』 which is for harm and diagnosis and treatment of Eum syndromes of exogenous febrile disease in 1303, and 『Tang-aekboncho(湯液本草)』 which is for property and flavor and meridian tropism of Herb and five kind of flavor's tonification and reduction, the meaning of prescription, care of health by food, 『Chasananji(此事難知)』 which is for meridian, Jangbu(臟腑), pathology, pathogen, clinical distinction, medical care in 1308.

Key Words : Wanghogo(王好古), Eumjeung-yangnye(陰證略例), Uiruwonyung(醫壘元戎), Chasananji(此事難知), Tang-aekboncho(湯液本草), Banronchweyeong(癩論萃英)

I. 序 論

王好古는 金元時代 易水學派의 著名한 醫家中의 한사람이다. 그는 『內經』에 정통하고 仲景을 깊이 연구하였으며 張元素와 李杲의 학문을 계승 받아 發展시켜 易水學派의 醫學理論을 後世에 전하는데 커다란 貢獻을 하였으며 특히 자신의 豊富한 臨床實踐과 결합하여, 傷寒에 있어서 陰證에 대하여 깊게 연구한

『陰證略例』와 易水學派의 藥物理論을 整理한 『湯液本草』와 臟腑辨證과 治法을 언급한 『此事難知』 등을 著述하였다.

王好古의 著作에 대하여 大田大學校韓醫科大學 卒業準備委員會에서 國譯 湯液本草¹⁾, 國譯 此事難知²⁾, 醫壘元戎³⁾을 翻譯하여 出版되고 있다. 그리고 趙炳日⁴⁾의 陰證學說에 대한 研究 및 藥物 및 傷寒理論

* 교신저자 : 金容辰,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學敎室
E-mail : king@dju.kr Tel : 042-280-2626,
접수일(2008년 7월 15일), 수정일(2008년 8월 12일),
게재확정일(2008년 8월 14일)

1) 王好古 著. 大田大學校韓醫科大學第9期卒業準備委員會 譯. 國譯 湯液本草. 서울. 大星文化社. 1996.
2) 王好古 著. 大田大學校韓醫科大學第10期卒業準備委員會 譯. 國譯 此事難知. 서울. 大星文化社. 1997.
3) 王好古 著. 大田大學校韓醫科大學第11期卒業準備委員會 譯. 醫壘元戎. 서울. 醫聖堂. 1998.
4) 趙炳日, 金容辰. 王好古의 陰證學說에 대한 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7. 20(2).

에 대한 연구가 있고, 趙炳日⁶⁾의 博士學位論文으로 『陰證略例』에 대하여 懸吐·翻譯·考察하는 方式의 研究를 進行하였다.

그러나 王好古의 醫學著作 各各에 대한 研究가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筆者는 王好古 著書의 序文에 대한 翻譯과 각 著書의 特徵 그리고 發刊年代에 대하여 研究한 바를 報告하는 바이다.

II. 本論

王好古는 一生동안 열심히 著述하여 著作이 아주 많이 있으니 스스로 『湯液本草』의 序에서 『醫壘元戎』, 『陰證略例』, 『痲論萃英』, 『錢氏補遺』 등 책을 지었다고 하였다.

徐大椿은 『古今醫統大全』⁷⁾에서 『醫壘元戎』 12卷, 『醫家大法』 3卷, 『仲景詳辨活人節要歌』, 『湯液本草』, 『此事難知』, 『斑疹論』, 『光明論』, 『標本論』, 『傷寒辨惑論』 등을 著述하였다고 하였고, 陳邦賢은 『中國醫學史』⁸⁾에서 『醫壘元戎』 12卷, 『醫家大法』 3卷, 『仲景詳辨』, 『活人節要歌』, 『湯液本草』, 『此事難知』, 『斑疹論』, 『傷寒辨惑論』을 著述하였다고 하였고, 丹波元胤은 『中國醫籍考·方論』⁹⁾에서 熊均의 말을 인용하여 王好古는 또한 『活人節要歌括』, 『三備集』, 『醫壘元戎』, 『湯液本草』, 『痲疹論』, 『光明論』, 『標本論』, 『小兒吊論』, 『傷寒辨惑論』, 『辨守眞眞』, 『十二經藥圖解』, 『仲景一集』, 『此事難知』 등이 있다고 하였다. 『歷代史志書目著錄醫籍匯考』에서는 『補遼金元史·藝文志』¹⁰⁾를 引用하여 『湯液本草』 3卷, 『湯液大法』 4卷, 『醫壘元戎』 12卷, 『陰證略例』 1卷, 『痲論萃英』 1卷, 『錢氏補遺

』 1卷이 있다고 하였으며, 『補元史·藝文志』¹¹⁾의 內容을 引用하여 『醫壘元戎』 12卷, 『此事難知』 2卷, 『湯液本草』 3卷, 『湯液大法』 4卷, 『陰證略例』 1卷, 『痲論萃英』 1卷, 『錢氏補遺』 1卷이 있다고 하였다.

現存 王好古의 著作은 『陰證略例』, 『醫壘元戎』, 『此事難知』, 『湯液本草』, 『海藏痲論萃英』 등이 있고 其他는 모두 散佚하였다.

1. 『醫壘元戎』 十二卷

『醫壘元戎·原序』

革車千乘과 帶甲十萬하고 籌策沈機하여 神鬼猜泣이라야 奇正萬全하나 歷古如是로 沉良醫之用藥이 獨不若臨陣之用兵乎잇가 奈何世人以平昔齒芥之浮學으로 應倉卒無窮之疾變하나 其不眩駭顛仆者寡矣라 況患固多藏于細微而發于人之所忽하나 由輕蹈危療之求하야 當苟無妙算深謀成法以統之하면 則倒戈敗績之不暇하나 尙何勝之可圖哉리오 則前日門類品目之定이 盡計不及之也라 予自河南與諸友將弟兵으로 日從事于患難之場하야 隨病察診하고 逐脈定方하야 聞之效之하고 薄之發之하야 以盡其宜吐之神之汗之下之하야 以極其當하며 攻守不常하고 出沒無定하고 大綱小紀를 經緯悉陳하고 本數末度를 條理具設前乎라 此는 古人之所隱秘深藏하야 或不盡意者나 不啻胸中自有十萬精銳로 如太阿之在匣中하고 其輝未嘗耀于外라 一旦撒而揮之하면 有以恐人之耳目하나 特入陳之奇鋒하고 七擒之利刃하야 其敵可却하고 其勝可決 而其安可圖하나 如此而後已라 故曰醫壘元戎云이라

丁酉九月二十有九日 王好古書하노라

千乘의 兵車와 十萬의 帶甲을 갖추고 慎重하게 計劃을 세우며 鬼神에게 눈물로써 祈願을 하여야 奇와 正으로 萬全을 기했다고 할 수 있다. 예로부터 이와 같았거늘 하물며 良醫의 用藥하는 것이 戰爭에 臨하여 用兵하는 것만 못하겠는가? 아! 世人들은 平素의 지푸라기 같은 浮淺한 學問으로 倉卒間에 끝이 없는 疾病의 變化를 應하여 治療

5) 趙炳日, 金容辰. 王好古의 藥物 및 傷寒理論에 대한 研究. 韓國醫史學會誌. 2007. 20(1).

6) 趙炳日. 陰證略例에 대한 研究. 大田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8.

7) 徐大椿. 古今醫統大全 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34.

8) 陳邦賢. 中國醫學史. 臺灣. 商務印書館. 1937. p.86.

9)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397.

10) 李茂如, 胡天福, 李若鈞 編著. 歷代史志書目著錄醫籍匯考-補遼金元史.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174.

11) 李茂如, 胡天福, 李若鈞 編著. 歷代史志書目著錄醫籍匯考-補元史.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180.

하니 어지럽고 놀라며 顛仆하지 않는 경우가 드물도다! 하물며 疾病이 진실로 人體의 微細한 곳에 숨어 있다가 그 사람이 소홀히 했을 때에 發病하는 경우가 많다. 疾病治療의 마땅함을 구하는데 진실로 꼼꼼히 計算하고 깊이 計劃을 세우지는 않고 이미 이루어진 法으로만 다스리려 한다면 창을 거꾸로 잡고 계속해서 敗走하기에도 바쁠텐데 어떻게 勝利하기를 圖謀할 수 있겠는가? 前日の 門類와 品目を 定함이 이렇게 曲盡히 計算에는 미치지 못함이 있었다. 내가 河南에서 여러 友將, 弟兵들과 함께 患難이 있는 地方의 일에 從事할 때에 病을 좇아 診察하고 脈을 따라 方을 定함으로써 開하게 하고, 效하게 하며, 薄하게 하고, 發하게 함에 그 마땅한 바를 다하였고, 吐하게 하고, 神하게 하며, 汗하게 하고, 下하게 함에 그 마땅한 바를 至極하게 하였다. 攻함과 守함이 一定하지 않고 出함과 沒함이 定함이 없으니 큰 綱領과 작은 紀綱이 經緯로 맞게 펼쳐져야 根本과 末端을 헤아리며 條理를 모두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앞에서 말한 것이 古人들이 隱密히 숨기고 깊이 간직하여 或 그 뜻을 다하지 않은 것이니 胸中에 十萬의 精微롭고 날카로움을 갖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마치 太阿라는 寶劍이 匣中에 있어 그 光彩가 아직 外에 빛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다. 一旦 그것을 빼어 휘두르면 사람들의 耳目을 두려워하게 함이 敵陣으로 突進하는 銳利한 先鋒과 같고 諸葛孔明이 오랑캐의 우두머리를 일곱번 놓아주었다가 일곱번 잡았던 銳利한 칼날과 같아서 그 敵을 물러나게 할 수 있고 勝利를 決定지을 수 있어 마침내 平安을 圖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後에라야 마쳤다고 할 수 있으니 그러므로 醫壘元戎이라고 이룬 것이다. 丁酉年(1297年) 九月 二十九일에 王好古가 書하다.

이 책은 王好古의 말에 의하면 辛卯年(1291年)에 初稿가 완성되었는데 후에 原稿가 佚失되고 기억을 되살려 대략 7-80%정도만 記憶하여 丁酉年(1297年)에 다시 撰述하였다고 한다. 『醫壘元戎』의 ‘壘’는 古代의 戰時에 守備를 담당하던 牆壁이라는 의미가 있

고, ‘元戎’은 軍隊의 主將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醫壘元戎』이라는 것은 良醫가 用藥하는 것이 良將이 用兵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로 지어진 書名이다.

內容은 十二經을 綱領으로 하여 첫 부분은 傷寒을 論述하고 뒤에 雜病에 대하여 言及하였다. 方藥은 주로 『和劑局方』의 것을 選用하였고 또한 자신의 經驗方도 記載하였다. 이 책의 特徵은 傷寒과 雜病의 구분을 하지 않고 六經辨證의 原則을 雜病에도 適用하였으며, 또한 雜病의 方藥을 六經諸證에 사용함으로써 傷寒과 雜病의 治療를 統一시켰다. 따라서 王好古의 『醫壘元戎』은 『傷寒論』의 六經分證의 應用範圍를 확대하여 수많은 雜病을 六經에 歸納시켜 辨證과 治療를 한 것이다. 예를 들면 虛勞裏急, 營衛不和한 黃芪建中湯證과 大補十全散證을 모두 太陽經에 귀납시키고, 痰飲內溢 혹은 津液內傷한 五飲湯證과 增損理中丸證을 陽明經에 귀납시키고, 痰飲凝結로 發熱한 參蘇飲證을 少陽經에 귀납시키고, 理中湯加減證과 平胃散加減證을 太陰經에 귀납시키고, 八物定志丸證과 天麻丸證을 少陰經에 귀납시키고, 四物湯과 八物湯證을 厥陰經에 귀납시켰다. 內傷과 外感의 疾病을 모두 六經辨證으로 施治할 수 있다는 이러한 主張은 後人들에게 큰 影響을 주었다. 清代 柯韻伯은 “仲景約法能令百病兼該於六經 而不能逃六經之外라(仲景의 傷寒治療法은 능히 百病으로 하여금 모두 六經에 兼하게 하여 六經에서 벗어날 수 없다.)”¹²⁾(『傷寒論翼·全論大法第一』)라고 하였으니 이러한 생각은 바로 王好古의 『醫壘元戎』의 啟發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醫壘元戎』에서 選方과 用藥에 있어서 加減化裁하여 靈活하고 變通性 있게 處方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예를 들면 理中湯은 『傷寒論』에서 8個의 加減法이 있지만 臨床運用에 있어서 不足하다고 하여 20餘個의 加減法을 보충하였고, 四物湯에서는 60여가지의 加減法을, 平胃散에서는 30여가지의 加減法을 언급하였으니, 이는 다양한 辨證論治에 의거하여 다양하게 方劑를 사용한 것이므로 臨床에 있어서 매우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歷代史志書目著錄醫籍匯考』에서는 『四庫全書簡明

12) 柯韻伯 著, 于伯海 輯, 傷寒金匱溫病名著集成·傷寒論翼,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363.

目錄』¹³⁾(清乾隆47年 1782年 高宗勅撰)를 인용하여 “大抵祖張機之意而參以其師張元素李杲之法이라 亦兼用和劑局方이로대 與朱震亨門徑小異 其曰醫壘元戎者는 自序謂良醫用藥에 若臨陣用兵也라”하여 張機를 爲始하여 張元素와 李杲의 傷寒理論을 언급한 것이며, 또한 『和劑局方』의 處方을 引用하여 朱震亨과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였다.

2. 『陰證略例』

『陰證略例·序』

人生天地間에 而陰陽命之氣하나니 其受病도 亦不外乎此라 醫家가 視證察脈하면 則必本諸陰與陽하나 自軒岐以來로 諸書를 可考也라 至漢長沙張仲景이 著傷寒一書하면 其言備矣 其法이 皆出伊尹湯液하나니 如易之於數와 春秋之於法하나 蓋萬世不可易者라 其論氣脈形聲하야 以測人之臟腑經絡之微하나 亦不過曰 如是爲陽이며 如是爲陰이요 如是爲寒이며 如是爲熱이요 如是爲有餘이며 如是爲不足하야 以決人之死生之變於朕兆之前 하나니 使夫學者로 可以按而知之 하나 苟能詳辨而勿失하면 則思過半矣라 然이나 混茫乎疑似之中하고 輻輳乎毫釐之間 하나니 自非精思入神하고 冥合造化하면 則不能也라 是以古者之言醫也에 皆聰明有道之士라 如孫思邈陶隱居葛稚川之徒는 何如人也야 迨夫叔世末流하면 多出於粗工庸人間하야 衰衣峨冠하야 挾方寸之囊하야 自命爲醫工이나 然이나 試讀其書하면 音讀音豆且不知어늘 況能索理於精微之地哉리오 如趙括之用兵이 徒能誦其父之書하야 旋取覆敗之禍어니와 如又不能誦其書하면 則其爲敗가 宜리니 如何哉리오 夫陰陽은 二證也니 寒與溫之味도 從而用之니 亦二也라 其主治嗜好는 又有大不同者하야 甚者는 各主一偏하야 互相詆訾하나 殊不知桂枝承氣之一倒置하면 則斃之患立見이라 異時承平貴人은 挾朔方鞍馬勁悍之氣하고 加以膏粱肥濃之養이라 故로 糝以剛劑하야 往往而中이라 或者가 遂狃於此하야 以爲人之爲病皆然하야 熱融陰候不論하나 豈理也哉리오 且四方風土가 旣殊 而人之稟受가 亦異어늘 而一律按之가 其可乎야 蓋亦求其至當而已矣라 嗚呼라 中古以降으로 老壽少而夭關多하나 豈眞不幸與인지 蓋醫者心術之偏은 其蔽必至於殺人하야 儒者心

術之偏은 其蔽必至於誤天下 하나 如宋之王安石이 是也니 偏之爲害之烈如此라 夫竊嘗謂受天地中和之性하고 得聖人公恕之學하야 不以利欲一毫入於其心而後에 可以爲儒爲醫矣라 天地萬物은 一理也요 聖人之道는 一中而已이니 中庸曰致中和면 天地位焉하고 萬物育焉어늘 而況醫乎야 海藏先生王君進之는 家世趙人이라 早以通經舉進士하고 晚獨喜言醫러니 始從東垣李明之하야 盡傳其所學이라 後乃精研極思軒岐以來諸家書하야 馳騁上下數千載間에 如指諸掌이라 予在大梁時에 聞其名諸公間籍甚이로대 獨以未識爲恨러니 今年秋來晉州하야 始得候先生於館舍하야 觀其氣和而凝하며 志一而定하나 有道者也라 與之遊甚閑할새 暇日에 出一編書授予하고 且謂予曰 傷寒은 人之大疾也라 其候最急 而陰證毒爲尤慘하나 陽則易辨而易治어니와 陰則難辨而難治라 若夫陽證은 熱深而厥하나 不爲難辨어니와 陰候寒盛하면 外熱反多하나 非若四逆의 脈沉細欲絕易辨也라 至於脈鼓擊有力하야 加陽脈數倍하면 內伏大陰하야 發煩躁欲坐井中 하나 此世之所未喻也라 予恐其誤하야 積思十餘年이라 蓋考自岐伯으로 迄今潔古老人하야 掇其精要하야 附以己說하야 釐爲三十餘條하나 有證有藥하고 有論有辨하야 名之曰陰證略例라 將鏤以傳하야 以詔後學하고 且與天下衛生之君子共之 하나 子盍爲我題其端하야 予退而伏讀之하고 善之曰 異乎哉라 未有是書也라 其於救物利生之念深矣라 至其論陽證見陰脈者死하면 謂有外陽內陰하나 若與陽藥猶可生과 若及陰陽易分寒熱과 陰陽易隨仲景三經用藥하야 皆出古人言意之表하나 學者又不深思而熟味之라 噫라 世之著書立言者多矣로대 其甚高難行하고 泛言無實者가 亦有之라 然則是書之出에 其知者는 必以爲精思妙用所傳 하나 證以古今하야 不可誣也어니와 其不知者는 則茫然無考하야 詆以爲悠悠談甚高難行也라 予以爲獲一人賢者之知이 不猶愈千百愚人之不知者 則是書可以傳信行世無疑矣라 故로 內翰王君이 從之하야 嘗題로대 曰世所未聞이라 하나 眞知言哉라 比先生過上黨할새 主吾故人文之하고 療數陰疾에 尤奇中이러니 皆書中所可概見者라 文之始亦駭하고 不敢用하나 反已試하야 歡曰 誤人多矣라 昔太倉公所上治驗을 太史氏列之傳末하고 近代錢仲陽嘗所治病을 閻孝忠記於論證後러니 今從先生得所書하나 主治次第하고 謹編如下方 하나 亦足以證愚者之不知者라 文之姓宋氏요 諱廷圭이며 長平人이라 世亦號善醫云이라 하나니라

歲癸卯 冬十一月 中浣日에 王官麻革信之가 謹題하노라

13) 李茂如, 胡天福, 李若鈞 編著. 歷代史志書目著錄醫籍匯考-四庫全書簡明目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677.

사람이 天地의 사이에 태어남에 陰陽이 氣로써 命하니 그 病을 받음도 또한 陰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醫家들이 “證狀을 보고 脈을 살피자면 반드시 陰과 더불어 陽에 근본한다.”라고 말하니 軒轅과 岐伯 이후로 모든 書籍에서 가히 고찰할 수 있다. 漢나라 長沙 太守인 張仲景이 傷寒論이라는 책을 著述함에 이르러서도 그 말이 잘 具備되어 있고, 그 法이 모두 伊尹의 湯液本草에서 나왔으니 마치 周易이 數로 드러나고 春秋가 筆法으로 드러남과 같으니 대개 만세토록 바뀌지 않는 것이다. 그 氣, 脈, 形, 聲을 論하여 사람의 臟腑 經絡의 微細함을 측량하니 또한 “이와 같으면 陽이 되며 이와 같으면 陰이 되고 이와 같으면 寒이 되며 이와 같으면 熱이 되고 이와 같으면 陰이 있고 이와 같으면 陽이 있다.”고 하는 것에 불과하니, 사람의 死生の 變化를 微兆가 막 나타나려는 前兆에 결정하게 하나니 學者로 하여금 가히 按察하여 알게 함이니 진실로 능히 자세히 辨別하여 실수하지 않으면 생각만 해도 깨달음이 많으리라. 그러나 의심나고 비슷한 가운데에서 混亂하며 漠漠해 하고 毫釐의 사이에서 엇하게 되나니, 스스로 정밀한 생각이 神의 경지에 들어가고 冥冥함이 造化에 습하지 않는다면 能하지 못하리라. 따라서 옛날에 醫를 말함에 모두 聰明하여 道가 있는 선비이니, 가령 孫思邈, 陶隱居, 葛稚川과 같은 무리는 어떠한 사람인가! 近世의 末流에 이르러서는 粗工과 庸人의 사이에서 醫師가 많이 나와서 긴 옷자락의 옷을 입고 높은 冠을 쓰고 方寸의 주머니를 가지고서 스스로 醫士라고 命名하는구나. 그러나 그 책을 읽은 것을 시험해 보면 讀을 독으로 읽을 때와 두로 읽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거나 하물며 능히 精微한 경지에서 理致를 玩索할 수 있으리오! 마치 趙括의 用兵과 같아서 한갓 능히 그 아버지의 책만 읽어서 바로 敗하는 禍를 곧 입음과 같거니와, 가령 또한 능히 그 글마저 외지 않으면 그 敗함이 마땅하리니 어찌하리오! 무릇 陰陽은 두 증상이니 寒 溫의 味도 그에 따라서 사용하니 또한 두 가지다. 醫師마다 그 主治와 嗜好도 또한 크게 같지 않은 경

우도 있어서 심한 경우는 각각 한 편에 치우쳐서 서로 서로 비방하고 헐뜯으니, 계지탕과 승기탕을 만일 정반대로 사용하면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근심이 곧 나타나게 됨을 너무도 알지 못하는구나! 언젠가 泰平한 때의 貴人들은 北方에서 行하는, 말에 안장을 씌우는 사나운 기운을 가지고 膏梁의 살찌고 농후함으로써 더욱 봉양하였기 때문에 강한 藥劑를 함께 넣어서 종종 약이 的中하였다. 혹자가 마침내 이 법에 익숙하여 사람들의 병이 모두 다 그러한 줄 여겨서 熱誠으로 陰候를 내쳐서 논하지 않으니 어찌 옳은 이치리오! 또한 四方의 風土가 이미 다르고 사람의 稟受도 또한 다르거늘 일률적으로 살피는 것이 그 가하겠는가! 대개 또한 그 지당한 것을 구해야 할 따름이다. 오호라! 中古 이후로 長壽하는 이가 적고 夭死하는 이가 많으니 어찌도 참으로 不幸하느냐! 대개 醫者의 心術이 치우침은 그 막힘이 반드시 殺人함에 이르며, 儒者의 心術의 치우침은 그 막힘이 반드시 천하를 그릇되게 함에 이르니 가령 宋나라의 王安石이 이에 해당하니, 치우침의 피해가 극렬함이 이와 같다. 조심스럽게 시험 삼아 말해보건대, 天地의 中和의 性을 받고 聖人의 公平하고 絜矩하는 學問을 얻어서 이곳의 욕심이 한 터럭이라도 그 마음에 들어가지 않은 이후에야 가히 儒者가 되며 醫者가 되리라. 천지의 만물은 한 이치이고 聖人의 道는 하나의 中일 따름이니, 『中庸』에 가로되 “中和 和를 끝까지 다하면 天地가 제자리를 잡고 萬物이 잘 길러진다.”라고 하였거늘 하물며 醫者에서야! 海藏 王進之 선생은 집안이 대대로 趙나라 사람이다. 어려서는 經書에 통달하여 進士에 등용되고 나이가 들어서는 유독 醫를 말하기를 좋아하였더니 처음에는 東垣 李明之 선생을 따라서 그 배운 바를 다 傳하였다가 후에 軒轅과 岐伯 이래의 諸家書를 정밀하게 연구하고 끝까지 思索하여 위아래로 수 천 년 사이를 달리기를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가리키는 것과 같았다. 내가 大梁에 있을 때에 그 이름이 諸公들에게 심히 잘 알려져 있으나 유독 진면목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더니 금년 가을에 潯州에

와서야 비로소 선생께 館舍에서 問候를 드렸더니 그 기가 溫和하여 영기며 뜻이 한결같이 확정되니 道가 있는 분이였다. 선생과 함께 유람하던 중 심히 한가할 때에 한 묶음의 책을 꺼내서 나에게 주고 또한 나에게 말씀하시길 “傷寒은 사람의 큰 질병이다. 그 證候가 가장 급하나 陰證의 毒이 더욱 비참하니 陽은 구분하기가 쉬워서 치료하기 쉽거니와 陰은 구분하기 어려워서 치료하기가 어렵다. 가령 陽證은 熱이 깊어지면 厥冷하게 되니 구분하기 어렵지 않거니와 陰候는 寒이 盛하면 外熱이 도리어 많아지니 四逆證의 脈이 沈細하여 끊어지고자 함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과 같지 않다. 脈이 복처럼 고동치고 힘이 있어서 陽脈이 두어 배 더해짐에 이르러서는 안으로 太陰에 潛伏하여 煩躁를 發하고 우물 한 가운데에 앉고자 하나니 이는 세상에서 깨우치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그 학설이 그릇되었을까봐 두려워서 생각을 거듭한 지 십여 년이었다. 대개 岐伯으로부터 지금의 張潔古 노인에 이르기까지 考察하여 그 精微와 요점을 끌어내어서 내 말을 붙여서 삼십여 條文으로 나누었나니, 證이 있으며 藥이 있고 論이 있으며 辨이 있어서 ‘陰證略例’라고 이름 하였다. 장차 목판에 새겨서 전하여 後學을 가르치고자 하고, 또한 天下의 衛生하는 君子와 함께 하고자 하니, 자네가 나를 위해서 그 序文을 써주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내가 물러나서 엿드려 읽고는 좋아하여 “기특하도다! 일찍이 이런 책이 있지 않았다. 그 萬物을 救濟하고 生을 이롭게 하려는 생각이 깊도다.”라고 하였다. 그 論함이 陽證에 陰脈이 나타나는 자는 죽는 것을 論함에 이르러서는 ‘밖은 陽이고 안은 陰이니 만약 陽의 藥을 주면 오히려 살 수 있다.’라고 하고, 陰陽으로 寒熱을 쉽게 구분함과 陰陽으로 仲景의 三經을 따라서 쉽게 用藥함에 이르러서는 모두 古人들이 말과 뜻의 밖에서 나온 것이니, 배우는 자가 또한 깊이 생각하고 익숙히 맞들이지 않음이라. 아야! 세상에 著書를 하고 立言하는 자가 많으나 그 심히 높아서 行하기가 어렵고 실체가 없는 것을 泛然히 말한 것도 또한 있다. 그렇다면

이 책의 出現에 그 아는 자가 반드시 傳한 바를 정밀히 생각하고 오묘하게 사용하니 古今으로써 증명하여 속일 수 없거니와, 그 알지 못하는 자는 막연히 고찰할 수가 없어서 헛뜯기를 너무 높아서 行하기 어렵다고 유유히 말한다. 나는 한 사람의 어진이의 지혜를 얻음이 오히려 千百의 어리석은 사람의 지혜롭지 못함과 같지 않다고 생각하니, 이 책이 가히 믿음을 傳하고 行世함을 의심치 않는다. 따라서 內翰(翰林學士)의 王君이 일찍이 序文을 짓기를 “세상에 듣지 못하였다. 참으로 知言함이다. 저번에 先生께서 上黨을 지날 때에 나의 친구인 文之에게 머물러서 여러 陰證을 치료하여 더욱 기묘하게 的中하였더니 모두 이 책에서 가히 대략 나타나 있는 것이다. 文之도 처음에는 놀라서 감히 사용하지 못하고 도리어 자기에게 시험하고서는 ‘사람들을 그릇되게 함이 많았도다!’라고 탄식하였다. 옛날에 太倉公이 올린 바의 治驗을 太史氏가 傳의 끝에 나열하였고, 근대에 錢仲陽이 일찍이 병을 치료한 것을 閻孝忠이 論證 뒤에 기록하였더니, 지금 선생으로부터 글을 쓴 것을 얻으니 主治가 차례로 있고 삼가 아래와 같이 編次하니, 또한 어리석은 이의 지혜롭지 못함에 족히 證明하고자 함이다. 文之의 姓은 宋氏요 諱는 廷圭이며 張平의 사람이다. 세상에서 또한 훌륭한 의사라고 불렀다. 癸卯年(1303年) 겨울 十一月 中旬日에 王官 麻革(信之)이 삼가 글을 쓰노라.

跋

陰證略例一冊은 元海藏老人王好古撰하니 以傷寒陰證較陽證尤難辨이라 故作專書以發明之라 審證用藥에 具有條理는 前有麻革信之序라 考四庫著錄海藏醫書有醫壘元戎十二卷 此事難知二卷 湯液本草三卷하고 獨無此書하니 蓋當時尚未出也하고 而明人編東垣十書者에 亦未見此書하니 知爲罕觀之秘笈矣라 此本前有虞山錢會遵王藏書一印하고 又有惠定宇手定本一印하고 又有孫印從沾慶增氏二印하고 中有惠棟之印 字曰定宇 二印하고 後有孫慶增家藏一印하고 近爲吾友震澤吳君曉鈺所得하니 眞舊鈔也라 好古는 字進之호 趙州人로래 以進士 官本州教授하고 自金入元하고

少時與李杲東垣同遊張元素潔古之門^{로대}而年輩較晚^{하고}
 其後復學於東垣^{이라}故醫壘元戎^은稱先師潔古老人^{하고}
 又稱東垣李明之先生^{하고}而此書麻序^에但云海藏先生王
 君進之^라家世趙人^{이니}早以通經舉進士^{하고}晚獨喜言^{이라}
 醫始從東垣李明之^{하야}盡傳其所學^{이라}冊末^에自題亦云
 不知何日復得吾東垣李先生一問之^{하고}並不及潔古何歟
 然^{이라}書中首列岐伯陰陽脈例^{하고}即次以潔古老人內
 傷三陰例^{하고}乃次以海藏老人內傷三陰例而伊尹扁鵲
 仲景諸例俱編於後^{하니}雖不稱先師而尊師之意已隱然見
 於言外矣^라或有訾其用藥過於溫熱者^{하니}不知專論陰證
 이니何可難入陽證治法^{이리오}海藏著述具存^{하니}豈能治
 陰證不能治陽證者^{리오}安得以後入不辨陰陽^{하고}偏執貽
 誤^{하야}追咎古人哉^{리오}自序題壬辰歲^{하야}爲金哀宗天興元
 年^{이니}即蒙古太宗四年^{이오}冊末自題稱丙申秋^{하니}乃蒙古
 太宗八年^{이니}金亡已三年矣^라麻序題歲癸卯^은則太宗後
 乃馬眞氏稱制之二年也^{이라}醫壘元戎^은成於丁酉^{하니}歲
 在此書後一年^오唯此事難知^는自序題至大元年^{하니}則上
 距金亡已七十餘年^{이니}豈海藏享上壽至武宗時猶存耶^아
 抑至大當是至元刊本之訛耶^아並書以俟考^라
 同治三年歲在甲子秋七月烏程汪日楨書於上海寓舍

跋

『陰證略例』는 元代 海藏老人 王好古가 撰하였으
 니 傷寒陰證이 陽證에 比較하여 더욱 辨別하기
 어렵기 때문에 專門的으로 陰證에 대하여 논한
 것이다. 審證用藥에 있어서 條理가 있다는 것은
 麻革信의 序에 나타나 있다. 『四庫全書』를 보면
 海藏의 著書로 『醫壘元戎』十二卷 『此事難知』二卷
 『湯液本草』三卷 만 있다고 하였으니, 『四庫全書』
 가 저술될 당시에는 『陰證略例』가 없었고, 明代에
 『東垣十書』를 編纂할 때에도 『陰證略例』가 없었
 으니 구하기 어려운 秘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陰證略例』는 앞에 虞山 錢會遵王의 藏書를
 인쇄한 것이 있고, 또 惠定宇 手定本을 인쇄한 것
 이 있고, 또 孫印從沾慶增氏가 두 번 인쇄한 것이
 있고, 그 가운데 惠棟의 인쇄한 것이 있으니 ‘定
 宇’라고 하여 두 번 인쇄한 것이 있고, 근래에 나
 의 친구인 震澤 吳君曉가 교정한 것을 얻어 보니
 진짜로 舊鈔本이다.

好古는 字가 進之이고 趙州사람이로대 進士에 합
 격하여 本州의 教授를 지냈고 金나라로부터 元나
 라에 속하게 되었다. 어렸을 때에는 李杲東垣과
 함께 張元素潔古의 門下에서 공부하였고 나이가
 李杲보다 여럿기 때문에 후에 다시 李杲에게 醫
 學을 배웠다. 그러므로 『醫壘元戎』은 先師인 潔古
 老人과 東垣李明之先生의 著者라고 말하였으나, 『
 陰證略例·麻序』에서는 海藏先生王君進之만을 著
 者라고 하였다. 집안은 趙州사람이니 일찍이 經書
 에 통달하여 과거를 보아 進士가 되었고 晩年에
 다른 사람들과 말하기를 좋아하였다. 醫學은 東垣
 李明之를 좇아 그의 가르침을 모두 배워 『陰證略
 例』의 마지막에 不知何日復得吾東垣李先生一問之
 라고 하였고 아울러 張潔古를 언급하지 않은 것
 은 왜그런가? 그 이유는 書中에 처음으로 岐伯陰
 陽脈例를 넣고 다음으로 潔古老人內傷三陰例를
 넣고 그리고 海藏老人內傷三陰例를 넣은 후에 伊
 尹 扁鵲 仲景의 諸例를 그 뒤에 넣었으니 비록
 스승이라고 언급하지 않았지만 스승을 존경하는
 생각이 隱然中에 나타나 있는 것이다. 혹은 溫熱
 한 藥物을 過多하게 使用하였다고 비판하는 사람
 들이 있으나 그 들은 陰證에 대하여 專門的으로
 論한 書籍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니 어찌
 陽證治法까지 혼합하여 기록하겠는가?
 海藏의 著述이 現存하니 어찌 다만 陰證만을 治
 療하고 陽證을 治療하지 못하겠는가? 어찌 陰陽
 을 辨別하지 못하고 그릇되게 하여 옛 사람들의
 誤謬를 따르겠는가? 自序는 壬辰歲(1232年)에 記
 錄하였으니 金나라 哀宗 天興元年(1232年)이니
 즉 元나라 太宗四年이다. 冊末에 丙申秋라고 하였
 으니 이것은 元나라 太宗八年(1236年)이니 金나
 라가 멸망한지 이미 三年이 지났을 때이다. 麻序
 에서는 서문을 쓴 癸卯年(1243年)은 太宗보다 후
 대의 것이니 馬眞氏가 稱制한후 二年이 된다. 『醫
 壘元戎』은 丁酉年(1237年)에 만들어 졌으니 『陰
 證略例』보다 一年後의 것이고, 오직 『此事難知』는
 至大元年(1308年)이라고 하였으니 이때는 金나라
 가 멸망한지 七十餘年이 되었으니 어찌 海藏先生
 이 武宗때까지 살아 계셨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至大는 그 당시인 至元(1264年)刊本の 錯誤인 것인가? 이것을 記錄하여 다른 學者들이 考察하여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同治三年 歲在甲子(1864年) 秋 七月에 烏程의 汪曰楨이 上海寓舍에서 記錄한다.

『陰證略例·跋』에서 “自序題壬辰歲하야 爲金哀宗天興元年이니 即蒙古太宗四年이오 冊末自題稱丙申秋하니 乃蒙古太宗八年이니 金亡已三年矣라 麻序題歲癸卯은 則太宗後니 乃馬眞氏稱制之二年也이라(自序는 壬辰歲(1232年)에 記錄하였으니 金나라 哀宗 天興元年(1232年)이니 즉 元나라 太宗四年이다. 冊末에 丙申秋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元나라 太宗八年(1236年)이니 金나라가 멸망한지 이미 三年이 지났을 때이다. 麻序에서는 서문을 쓴 癸卯年(1243年)은 太宗보다 후대의 것이니 馬眞氏가 稱制한후 二年이 된다.)”라고 하여 1232年과 1236年의 수정을 거쳐 1243年에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年代에 대한 考察은 汪曰楨의 主張이다. 이외에 現代 學者들의 主張으로 孔健民¹⁴⁾은 『醫壘元戎』이 1291年(至元28年)에 著述되었고, 『伊尹湯液仲景廣爲大法』이 1294年(甲子年 至元31年)에 著述되었고, 『湯液本草』는 1298年(大德2年 戊戌年)에 完成하였고, 『此事難知』는 1308年(至大元年 戊申年)에 著述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史蘭華¹⁵⁾도 『湯液本草』는 1289年(至元26年)刊行되었고, 『此事難知』는 1308年(至大元年)에 刊行되었다고 하였다. 中國醫籍大辭典編纂委員會¹⁶⁾는 『陰證略例』는 端平3年인 1236年에 完成되었고 1243年(純佑3年)에 刊行되었다고 하였고, 『此事難知』와 『湯液本草』는 1308年(至大元年)에, 『醫壘元戎』은 1291年(至元28年)에, 『癩論萃英』은 1237年(嘉熙元年)에 完成되었다고 하였다.

汪曰楨의 主張에 의하면 王好古의 著作年代는 1232年에서 1248年 사이에 集中되고 그 1264年에 『此事難知』를 著述하여 약 20여년 정도의 空白이 있게 되어 疑問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汪曰楨의 主張

에 60년을 더하여 보면 1292年에서 1308年사이로 醫學思想이 거의 完成된 末年에 旺盛한 著述活動을 하였다는 것과, 王好古가 직접 기록한 ‘至大元年’이라는 날짜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되면 앞으로 王好古의 生卒年代에 대한 考證도 必要하다고 思料된다.

이 책은 專門的으로 傷寒陰證의 危害性과 證治를 闡明한 것이다. 汪曰楨은 『陰證略例·序』에서 “以傷寒陰證較陽證尤難辨이라 故作專書以發明之라 審證用藥에 具有條理라”라고 하였다. 이는 王好古가 傷寒病을 陰陽으로 구분하고, 陽證은 辨證과 治療가 쉽지만 陰證을 辨證과 治療가 쉽지 않기 때문에 著書하였다는 것을 설명한다. 王好古는 古人들이 陰證을 論한 文獻을 수집하여 첫 번째 條文은 岐伯의 陰陽脈例를 설명하였고 그 다음 條文은 張潔古와 著者의 內傷三陰例를 설명하였으며 또한 伊尹, 扁鵲, 張仲景, 許叔微, 韓祗和 등의 여러 病案들을 모두 42개를 예를 들었으며

著書	序文	汪曰楨	筆者	其他
醫壘元戎	丁酉年 9月 29日	1237年	1297年	
陰證略例	癸卯年 11月 15日	1232年 1236年 1243年	1303年	麻革의 序가 있다. 그리고 『證類本草·序』를 己酉孟秋望日(1189年)에 記錄한다고 하였다.
湯液本草	戊戌年 6月 丙午年 6月 戊申年 5月30日	1238年 1246年 1248年	1298年 1306年 1308年	
此事難知	至大改元 7月 21日	1308年	1308年	汪曰楨은 至大를 至元(1264年)으로 修正
			年號 記錄	麻革의 生卒年에 대한 考證이 必要하다.

표 1. 王好古 主要 著書의 著述年度 比較

14) 孔健民. 中國醫學史綱.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131, 262.

15) 史蘭華. 中國傳統醫學史. 北京, 科學出版社. 1992. p.329.

16) 中國醫籍大辭典編纂委員會. 中國醫籍大辭典. 上海, 上海科技出版社. 2002. p.95, 257.

모든 證의 뒤에 方藥을 밝혀져 있으며 또한 著者의 評述로 있다. 따라서 證藥과 論辨이 있어 傷寒陰證의 危害성과 證治를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 「海藏治驗八則」이 있으니 이는 모두 王好古의 臨床經驗을 記錄한 것으로 實用的인 價値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에 대하여 麻信之는 『陰證略例·序』에서 “異乎哉라 未有是書也라 其於救物利生之念深矣라 …… 世之著書立言者多矣로대 其甚高難行하고 泛言無實者 亦有之라 然則是書之出에 其知者는 必以爲精思妙用所傳하니 證以古今하야 不可誣也라”라고 평가하였다. 이 책은 王好古의 代表作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 알고 있는 版本으로는 朱廣仁이 校注한 『陰證略例』¹⁷⁾에서 『濟生拔萃』에서 가장 처음으로 보이고, 清代 錢遵王이 所藏한 舊抄本이 나중에 淸 光緒 5年 1879年 陸心源의 『十萬卷樓叢書』에 收錄되었고, 1924年 裘吉生의 『三三醫書』와 1936年 曹炳章의 『中國醫學大成』에도 收錄되었다.

3. 『湯液本草』

『湯液本草』序一 世皆知『素問』爲醫之祖 而不知軒岐之書實出于『神農本草』也라 殷伊尹用『本草』爲湯液하고 漢仲景廣『湯液』爲大法하니 此醫家之正學이로라 雖后世之明哲有作이라도 皆不越此라 予集是書는 復以『本草』正條하고 各從三陰三陽十二經爲例로라 仍以主病者爲元首하고 臣佐使應次之하야 不必如編類者니 先玉石次草木次虫魚하고 以上中下三品爲門也라 如太陽經當用桂枝湯麻黃湯하니 必以麻黃桂枝爲主하고 本方中余藥后附之라 如陽明經當用白虎湯하니 必以石膏爲主하고 本方中余藥后附之라 如少陽經當用三禁湯하니 必以柴胡爲主하고 本方中余藥后附之라 如太陰少陰厥陰之經에 所用熱藥하니 皆仿諸此라 至于『金匱』祖方라만 『湯液』外定爲常制하니 凡可用者皆雜附之라 或以傷寒之劑改治雜病하고 或以權宜之料更療常疾하니 以湯爲散하고 以散爲丸하야 變易百端이라 增一二味하야 別作他名하고 減一二味하야 另爲殊法이라 『醫壘元戎』과 『陰證略例』와 『癩論萃英』과 『錢氏補遺』等書는 安樂

之法이오 『湯液本草』統之하니 其源出于潔古老人『珍珠囊』也라 其間議論에 出新意于法度之中하면 注奇辭于理趣之外하고 見聞一得에 久弊全更하니 不特藥品之咸精하면 抑亦疾病之不誤라 天橫不至하고 壽域可期니 其『湯液本草』歟라 時戊戌夏六月에 海藏王好古가 書하노라

세상 사람들은 모두 『素問』이 의학의 元祖라는 것을 알지만 軒岐의 書籍인 『素問』이 『神農本草』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모른다. 殷·伊尹이 『本草』로 湯液을 만들고 漢·仲景이 『湯液』을 넓혀 傷寒大法을 만드니 이것이 醫家의 正學이 되는 것이다. 비록 後世의 明哲한 醫家의 著作이라도 이것을 뛰어넘지는 못한다. 내가 이 『湯液本草』를 만드는 것은 『本草』의 正條를 恢復하고 각각 三陰三陽과 十二經을 따라 예를 들었으니 여전히 主病을 元首로 하고 臣佐使를 다음으로 하여 編類하는 방식이 아닌 것이니 먼저 玉石 다음으로 草木 그 다음으로 虫魚를 記錄하고 上中下三品으로 門을 삼았다. 가령 太陽經에 桂枝湯麻黃湯을 사용하니 반드시 麻黃桂枝를 爲主하고 本方中의 다른 藥物은 뒤에 기록하였다. 또 陽明經에 마땅히 白虎湯을 사용하니 반드시 石膏로 爲主하고 本方中의 다른 藥物은 뒤에 기록하였다. 또 少陽經에 마땅히 三禁湯을 사용하니 반드시 柴胡로 爲主하고 本方中의 다른 藥物은 뒤에 기록하였다. 또 太陰少陰厥陰經에 熱藥을 使用하여야하니 모두 위와 같이 한다. 『金匱』祖方에 이르러 『湯液』의 外定을 常制하니 무릇 가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뒤에 기록하였다. 혹은 傷寒에 사용하는 藥物을 고쳐서 雜病을 治療하게 하고 혹은 醫學理論에 맞추어 變通할 수 있는 藥物로 常疾을 治療하니 湯劑를 散劑로 만들고 散劑를 丸劑로 만들어 다양하게 變易한다. 一二味를 더하여 다른 處方으로 이름짓고, 一二味를 빼서 다른 治法으로 하는 것이다. 『醫壘元戎』과 『陰證略例』와 『癩論萃英』과 『錢氏補遺』等書는 安樂法이고 『湯液本草』가 이들을 統括하니 潔古老人의 『珍珠囊』이 그 淵源이 된다. 그 사이 議論함에 法度에 맞는 새로운 意見이 있으면 주장하는 이론이 아닌 것으로 특이한

17) 王好古著, 朱廣仁 校注. 于伯海. 輯. 傷寒金匱溫病名著集成·陰證略例.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172.

말로 주석을 달고, 見聞을 언음에 오래된 폐단을 완전하게 고치니 特藥品에 대하여 모두 精密하게 알지 못하면 또한 疾病에 착오가 있지 않게 되고 天橫하지 않게 되고 오랫동안 살것을 期約할 수 있으니 『湯液本草』인 것이다.
時戊戌(1298年) 夏六月에 海藏 王好古가 기록한다.

湯液本草原序

神農이 嘗百草하고 立九候하여 以正陰陽之變化하여 以救性命之昏札하여 以爲萬世法하시니 既簡且要라 殷之伊尹이 宗之하여 倍於神農得立法之要하니 則不害爲湯液이라 漢張仲景이 廣之하고 又倍於伊尹得立法之要하니 則不害爲確論이라 金域潔古老人이 派之하고 又倍於仲景而亦得盡法之要하니 則不害爲奇註라 潔古倍於仲景이 無以異仲景之倍於伊尹하고 仲景之倍於伊尹이 無以異伊尹之倍於神農也라 噫라 宗之와 廣之와 派之와 雖多寡之不同이로라 其所以得立法之要則一也라 觀潔古之說則知仲景之言하고 觀仲景之言則知伊尹之意하니 皆不出於神農矣라 所以先本草하고 次湯液하고 次傷寒論하고 次保命書하니 闕一不可矣라 成無己의 明理方例云 自古諸方歷歲浸遠하여 難可考憑이라 仲景方最爲衆方之祖하니 是仲景本伊尹之法하고 伊尹本神農之方하여 醫帙之中에 特爲縝細하고 參合古法하고 不越毫末하니 實大聖之所作也라 文潞公의 藥準云 惟仲景이 爲群方之祖也라 昔唐宋以來로 得醫之名者는 如王叔和 葛洪 孫思邈 范汪 胡治 朱奉議 王朝奉 錢仲陽 成無己 陳無擇輩니 其醫論方定하고 增減變易이 千狀萬態하여 無有一毫不出於仲景者라 金域百有餘載에 有潔古老人張元素하니 遇至人하여 傳祖方不傳之妙法하여 嗣是하고 其子雲岐子張璧와 東垣先生李杲明之가 皆祖長沙張仲景湯液하니 惜乎世莫能有知者라 予受業於東垣老人이라 故敢以題하노라 丙午歲夏六月에 王好古序하노라

神農씨께서 百草를 맛보시고 九候를 세우시어 陰陽의 變化를 바르게 하시어 性命의 昏札을 구하시고 萬世의 法으로 삼으시니 이미 간략하고도 요긴하구나! 殷나라 伊尹께서 이를 宗하였고 神農씨의 功에 倍하여 立法의 要點을 얻으셨으니 즉

湯液으로써 病을 治療함에 害가 없었다. 漢나라 張仲景께서 이를 廣하였고 또 伊尹의 功에 倍하여 立法의 要點을 얻으셨으니 醫論을 확실히 하였다. 金나라 潔古老人께서는 이를 派하였고 또한 仲景의 功에 倍하여 모든 法의 要點을 또한 얻으셨으니 즉 奇註함에 害가 없었다. 潔古께서 仲景에 倍함이, 仲景께서 伊尹에 倍함과 다르지 않고 仲景께서 伊尹에 倍함이 伊尹께서 神農에 倍함과 다르지 않다. 嗚呼라! 宗하시고 廣하시고 派하십시오! 비록 많고 적음이 같지 않으나 그 立法의 要點을 얻은 바는 하나이다. 潔古의 說明을 헤아려 보면 仲景의 말씀을 알 수 있고 仲景의 말씀을 헤아려 보면 伊尹의 뜻을 알 수 있으니 모두가 다 神農씨에게서 나온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먼저 『本草經』을 공부해야 하고 다음으로 『湯液』 그 다음으로 『傷寒論』 다음으로 『保命書』를 공부해야 하니 하나라도 빠뜨리는 것은 不可하다. 成無己가 『傷寒命理論』의 方例에서 말하기를 “예로부터 있던 諸方이 歲月이 흘러 점점 멀어져서 가히 考察하고 證憑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仲景의 方이 衆方의 가장 오래된 基本方이 되니 이는 仲景이 伊尹의 法에 근본하셨고 伊尹께서는 神農의 方에 근본하셨다. 醫書 중에 특히 細密함이 되고 古法에 參合하여 捫끝 만끝도 그 古法을 넘지 않았으니 진실로 大聖께서 지으신 것이다.”라 하였고 文潞公의 『藥準』에서 말하기를 “오직 仲景의 方만이 群方의 祖가 된다.”고 하였다. 옛날 唐宋 이래로 의원으로서 名聲을 얻은 자로 王叔和 葛洪 孫思邈 范汪 胡治 朱奉議 王朝奉 錢仲陽 成無己 陳無擇 等과 같은 이들이 있었으니 그 醫論은 方定하고 增減의 變易은 千狀萬態이나 한 터럭이라도 仲景에서 나오지 않음이 없었다. 金나라 백여 년에 潔古老人 張元素께서 至人을 만나 祖方의 傳하지 않는 妙한 法을 전해 받아 이것을 이으니 그의 아들 雲岐子 張璧와 東垣先生 李杲 明之께서도 모두 長沙지방 張仲景의 湯液을 祖述하였다. 슬프구나! 세상에 능히 아는 자가 없구나! 내가 東垣老人께 受業을 받아 감히 뜻을 적노라. 丙午歲(1306年) 夏 六月 王好古 序

『湯液本草』後序 劉禹錫云：『神農本經』以朱書하고 『名醫別錄』以墨書하니 傳寫既久에 朱墨錯亂하야 遂令後人以爲非神農書하니 以此故也라 至於『素問』本經하야 議者以爲戰國時書하야 加以補亡數篇하니 則顯然非『太素』中語니 宜其以爲非軒岐書也라 陳無擇云：王叔和『脈訣』即高陽生剽竊이라하니 是亦後人增益者雜之也라 何以知其然이오 予觀劉元賓注本하니 雜病生死歌後는 比之他本即少八句하니 觀此八句는 不甚滑溜하고 與上文書意重疊하니 後人安得不疑리오 與『本草經』朱書雜亂과 『素問』之補亡混淆로 何以異哉리오 宜乎라 識者非之하고 繼而紛紜不已하야 하니 吾不知他時誰爲是正이라 如元賓潔古詳究而明稱하니 其中凡有所疑而不古者削去之하고 或不復注而直書本文하니 吾不知爲意易曉不必云耶아 爲非聖賢之語而辯之耶아 二者必居一於此라 又啟玄子注『素問』은 恐有未盡하니 以朱書로 待明者改刪增益이로래 傳錄者가 皆以墨書하야 其中不無差誤라 如『刺熱論』注에 五十九刺는 首云王注하니 豈啟玄子之自謂乎아 此一篇又可疑也라 兼與『靈樞』不同하니 以此經比之『素問』八十九刺하면 何者爲의이오 以此觀之컨대 若是差別은 勞而無益하니 學者安所適從哉아 莫若以『金匱』考之하면 仲景所不言者를 皆所不取하면 則正知眞見定矣라 盧若論血枯에 舉『太素』云 此得之年少時大脫血而成이라하고 又舉子死腹中할새 穢物不消라하고 又舉犯月水入房하면 精與積血相射하야 入於任脈하야 留於胞中하니 古人謂之精積이라하니라 元豐中에 雄州陳邦濟收一方하야 治積精及惡血淹留하고 胞冷絕娠할새 驗者甚多하니 其意與『內經』相近이라 烏賊魚骨本治漏下與經汁不斷하고 蘭茹去淹留惡血하니 古人用此는 皆『本草』法이라 予觀方注條云 古人用此는 皆本草法一句니 何其知本哉리오 以是知軒岐之學이 實出於神農也오 又知伊尹湯液不出於軒岐하고 亦出於神農也라 皆之一字는 至甚深廣也니 豈獨烏賊斷汁之一法哉리오 故知張伯祖之學이 皆出於湯液하고 仲景師而廣之하야 迄今湯液不絕矣라 晉唐宋以來로 號明醫者皆出於此하니 至今大定間에 潔古老人張元素及子雲岐於張璧과 東垣李杲明之三老者出하야 想千百載之下에 無復有之也하니 何以知其然이리오 蓋當時學者雖多로래 莫若三老之實絕也라

時戊申仲夏晦日에 王好古書於家之草堂하니라

『湯液本草』後序 劉禹錫이 『神農本經』는 붉은 글

씨이고 『名醫別錄』은 검정 글씨로 썼다고 하니 傳寫하는 과정이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朱墨이 錯亂하여 드디어 後世사람들로 하여금 神農氏의 본래 文章을 알아 볼 수 없게 하였다고 하니 이러한 연고이다. 『素問』에 이르러 論議하는 사람들이 戰國時에 쓰여진 것이라고 하여 ‘補亡’이라고 하여 數篇을 添加하니 즉 確然히 『太素』에 나오는 말이 아닌 것이니 마땅히 그것은 軒岐가 記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陳無擇이 王叔和의 『脈訣』은 高陽生이 剽竊하였다고 하니 이 또한 後世사람들이 점차 追加하여 複雜하게 만든 것이다. 어찌 그렇다는 것을 아는가? 내가 劉元賓의 注本을 보니 雜病生死歌의 뒤에는 他本에 比較하여 八句가 적게 되어 있으니 이 八句를 보면 文脈이 매끄럽지 못하고 윗 文章과 더불어 意味가 重疊되니 後人이 어찌 疑心하지 않겠는가? 『本草經』의 朱書雜亂과 『素問』의 補亡混淆로 더불어 어찌 다르지 않겠는가? 아아 識者가 잘못되었다고 하고 계속하여 논쟁이 그치지 않으니 내가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를 모르겠다. 예를들어 元賓과 潔古가 자세하게 연구하고 명확하게 일컬었으니 그 가운데 疑心이 들거나 옛것이 아닌 것을 없애고 혹은 다시 注釋을 달지 않고 직접 本文에 기록하니 내가 그 意味를 쉽게 이해하기를 기필하지 않겠는가? 聖賢의 말이 아니라고 辯論하겠는가? 반드시 이 두가지중 하나일 것이다. 또 啟玄子注『素問』은 未盡한 곳이 있는것 같으니 明哲한 사람이 고쳐 增益하기를 바라고 붉은 글씨로 記錄한 부분이 있지만 傳錄하는 사람이 모두 검정글씨로 써서 差誤가 생겨나게 되었다. 예를 들면 『刺熱論』의 注에 五十九刺는 먼저 王注가 있으니 啟玄子가 어찌 스스로를 일컬었겠는가? 이러한 부분이 또한 의심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靈樞』와 더불어 같지 않으니 『靈樞』와 『素問』八十九刺를 比較하면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러한 것으로 생각해 보건대 이러한 差別은 번거로울 뿐 이롭지 못한 것이니 學者가 어찌 이를 따르겠는가? 『金匱要略』으로 생각하여 보면 仲景이 언급하지 않은 것을 모두 취하는 바가 아니니 즉 正知眞見이 정

하여 질 것이다. 盧若 血枯를 논함에 『太素』에 이것은 젊었을때 大脫血하여 이루어 진 것이라고 하고 또 子死腹中을 이야기 할때 穢物不消라하고 또 月經중에 性交를 하면 精과 積血이 섞여서 任脈에 들어와 胞中에 머무르게 되니 이를 古人들이 精積이라고 하였다. 元豐중에 雄州의 陳邦濟가 一方을 얻어 積精과 惡血淹留하고 胞冷絕娠을 治療할 때에 효과가 매우 많이 있었으니 그 意味가 『內經』과 類似하다. 烏賊魚骨은 본래 漏下와 經汁不斷을 治療하고 蘭茹는 淹留惡血을 除去하니 古人이 이를 使用한 것은 모두 『本草』의 方法에 따른 것이다. 내가 方注條를 보고 古人이 이를 使用한 것은 모두 本草法 一句를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니 어찌 그 根本을 알겠는가? 이로써 軒岐의 學術이 실로 神農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 수 있고, 또 伊尹湯液이 軒岐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神農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니, 皆라는 한 글자는 至甚深廣한 것이니 어찌 오직 烏賊斷汁의 方法만 일 뿐이겠는가? 그러므로 張伯祖의 學術이 모두 湯液에서 나오고, 仲景이 傳受받아 넓혀 지금에 이르러 湯液의 命脈이 끊어지지 않은 것이다. 晉唐宋 以來로 明醫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모두 여기서 나오니 至今 大定間에 潔古老人張元素와 그의 아들 張璧(雲岐子)과 東垣 李昉明之의 세사람이 나타나 千餘年 동안 위대한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어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대개 當時의 學者가 비록 많이 있지만 세사람의 名실상부함만 못하다. 때는 戊申年(1308年) 仲夏晦日에 王好古가 집의 草堂에서 記錄한다.

이 책은 類集性的인 本草에 관한 書籍이다. 이름을 ‘湯液’이라고 지은 것은 『漢書·藝文志』에 “湯液經方”이라는 말의 뜻을 본받은 것이다. 湯液은 즉 煎劑라는 뜻이다. 內科病을 治療할 때 거의 內服하는 煎劑를 사용하므로 『湯液本草』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다. 李時珍은 『本草綱目·序例上·歷代諸家本草』¹⁸⁾에서 이 책

에 대하여 “取本草及張仲景 成無己 張潔古 李東垣之書하고 間附己意하여 集而爲此라(本草와 張仲景 成無己 張潔古 李東垣의 醫書를 모으고 간간히 자신의 견해를 넣어 편찬하였다.)”라고 評價하였다. 王好古의 自序가 3篇이 있는데 落款年代가 각기 戊戌(1298年), 丙午(1306年), 戊申(1308年)이라는 것으로 보아 王好古가 原稿를 세 번이나 수정하였고 10年間的 시간을 거쳐 책을 完成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專門的으로 藥物을 論하였고 上, 中, 下의 三卷으로 되어있다. 上卷은 總論으로 첫 내용이 「五臟苦欲補瀉藥味」이고, 그 다음으로 李東垣의 藥物學에 대한 論說인 「藥類法象用藥心法」을 論하였고, 마지막 내용은 「五宜」, 「五傷」, 「五走」, 「七方」, 「十劑」를 설명하였다. 中下卷은 각기 代表的인 藥物을 241種 收載하였으니 中卷의 草部에 108種을 收載하였고, 下卷의 木, 果, 菜, 米, 穀, 玉石, 禽獸, 蟲部에 133種을 收載하였다. 그리고 藥物의 性味, 歸經 등에 대하여 깊은 研究를 하였으며 五味의 補虛瀉實法과 制方相宜 및 飲食調養 등에 대해서도 독특한 見解를 밝혔으며, 또한 어떤 藥物에는 單驗方도 기록하였는데 아주 實用的이다. 따라서 이 책은 古代 本草學을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다.

『歷代史志書目著錄醫籍匯考』에서는 『四庫全書簡明目錄』¹⁹⁾(清乾隆47年 1782年 高宗勅撰)를 인용하여 “上卷述藥之凡例하고 中下二卷以本草諸藥配十二經絡하고 各以主病者爲君하고 臣佐使應次之라 大都從經驗而來하여 不甚泥本經舊文也라”고 하여 옛날 醫書의 말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자신의 經驗을 바탕으로 著述하였다고 하였다.

4. 『此事難知』

此事難知序

予讀醫書幾十載矣에 所仰慕者는 仲景一書爲尤焉이라 然이나 讀之未易洞達其趣하니 欲得一師指之^{전대} 遍國中無有能知者^{하야} 寤而思^{하고} 寐而思^{하니} 天其勤恤^{하야} 俾我李公

18) 李時珍. 圖解本草綱目 上冊. 台北. 文光圖書有限公司. 1968. p.6.

19) 李茂如, 胡天福, 李若鈞 編著. 歷代史志書目著錄醫籍匯考 - 『四庫全書簡明目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677.

明之授予^하고 及所不傳之妙^{하니} 旬儲月積^에 浸就編帙^하야
 一語一言이 美無可狀^{이오} 始而終之^{하고} 終而始之^{하니} 即無
 端之圓壁也^라 或有人焉厭聞而惡見者^{하니} 豈公徒使之然
 哉^{리오} 彼未嘗聞未嘗見^{하고} 恥夫後於人之過也^{하야} 因目之
 曰 此事難知^{라하니} 以其不因師指也^{일세라} 人徒見是書爲傷
 寒之法^{하고} 而不知上合軒岐之經^과 中契越人之典^과 下符
 叔和之文^{하고} 茲又言外不傳之秘^라 具載斯文矣^{라하니라}
 時至大改元秋七月二十有一日^에 古趙王好古가 識^{하노라}

내가 醫書를 읽은지 몇 십 년이나 되었으나 우
 러르고 사모하는 것은 張仲景의 『傷寒論』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읽어도 그 뜻을 쉽게 통달하지
 못하였으니 스승을 찾아 가르침을 받고자 하여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녔으나 능숙하게 아는 이
 가 없었다. 寤寐不忘 研究하니 하늘이 불쌍히 여
 기시어 李芾선생으로 하여금 나에게 가르침을 주
 게 하시고, 아울러 전해지지 않는 妙한 이치를 전
 달하게 하여 주시니, 세월이 쌓이고 쌓여 점차 책
 으로 이루어짐에 미처서는 스승님의 한마디가 形
 言할 수 없이 아름답고, 시작함에 끝이 나고 끝남
 에도 다시 시작을 하여 끊임없이 연결된 둥근 고
 리와 같음이라. 혹은 어떤 사람은 듣기도 보기도
 싫어하는 경우가 있다 하니 어찌 스승님의 弟子
 가 그렇게 하겠는가? 그러한 사람은 스승님의 가
 르침을 일찍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이니 다른
 사람보다 뒤짐을 부끄러워하는 過誤가 되어 이러
 한 까닭으로 지목하여 말하기를 이런 부류의 것
 들은 알기 어렵다 한 것이니 이는 스승님의 가르
 침에 기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 책
 을 보고 단지 傷寒의 法이라고만 여길 뿐, 위로는
 軒岐의 『黃帝內經』과 통하고, 가운데로 秦越人の
 『難經』과 합하며, 아래로는 叔和의 『脈經』과 부합
 됨을 알지 못하고, 또 이에 말로 다할 수 없는 秘
 法이 모두 이글에 실려 있음을 알지 못한다.
 때는 至大改元(1308年) 가을 七月二十一日에 王
 好古가 적는다.

此事難知後序
 東垣先生醫書一帙을 予府已鑿梓^{하야} 傳於世矣^라 今又得

一書^{하니} 亦東垣治疾之法^{이니} 名曰此事難知^{라하니라} 蓋醫之
 爲道^라 所以續斯人之命^{하니} 而與天地生生之德^{으로} 不可
 一朝泯也^라 秦焚六經而廢周公孔子之道^{로대} 幸而醫書存
 世^{하니} 考諸經者^{하면} 則知黃帝與岐伯之論辯이 反覆推明
 五運七氣之秘^{하야} 以立補泄之法^{하니} 所以拯斯人之疾 而
 人之死生繫焉^{이라} 岐黃既遠^{하야} 求能推諸五運七氣而察
 陰陽升降之候^{하고} 定臟腑虛實之所因^{하고} 合經絡上下之
 所屬^{하야} 而能起死回生者鮮矣^라 噫^라 克紹明之者^는 其惟
 東垣先生乎^니 先生是書^가 乃言外不傳之秘^{하야} 誠爲人所
 難知^라 然^{이나} 方劑雖載其妙理^{로대} 有不可得而明言者^는 在
 乎心領而神會耳^라 唐許胤宗曰 醫者^는 意也^{라하니} 思慮精
 則得之^{하니} 此之謂歟 而孟軻氏曰 梓匠輪輿^가 能與人規
 矩^{하고} 不能與人之巧^{라하니} 亦此謂也^라 予用壽行 而與四方
 之士共焉^{하면} 則濟人利物之一端末^에 必無小補云^{이로다}
 成化甲辰歲仲夏 既望^에 荊南一人이 識^{하노라}

東垣先生의 醫書一帙을 우리집에서 印刷하여 세
 상에 전하였다. 지금 또 하나의 醫書가 있으니 또
 한 東垣의 疾病을 治療하는 것이니 이를 『此事難
 知』라한다. 대개 醫學의 道됨은 사람의 生命을 이
 어주는 바이니 天地의 生命을 살아가게 하는 德
 과 더불어 하루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奏
 代에 焚書坑儒로 六經을 불태워 周公과 孔子의
 道를 廢하였으나 다행히 醫書는 보존되었으니 세
 상의 여러 經典을 고찰해 본 사람이라면 黃帝와
 岐伯의 論辯이 반복적으로 五運七氣의 秘法을 미
 루어 밝혀서 補하고 瀉하는 方法을 세웠으니 사
 람의 疾病을 救濟하였는바 사람의 生死가 여기에
 매여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岐伯과 黃帝의 時代
 가 이미 오래되어 五運七氣를 미루어서 陰陽升降
 의 徵候를 觀察하고 臟腑虛實의 原因이 되는 바
 를 決定하고 經絡上下의 所屬을 합하여 능히 起
 死回生시키는 사람이 적게 되었다. 아아! 능히 이
 어서 밝힌 者는 오직 東垣先生뿐이니 先生의 이
 책이 言語로만 전달되는 秘密스러운 것이어서 진
 실로 사람들이 알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方劑
 에 비록 그 妙法을 실었으되 가히 그 이치를 알
 아서 밝혀 말하지 못하는 것은, 마을을 고요히 가
 다듬어 神明으로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唐代

許允宗이 “醫者是 意也라”고 하였으니 정밀하게 생각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니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孟軻氏(孟子)가 말하기를 “목수와 수레 만드는데 사람이 남에게 規矩를 가르쳐 줄 수는 있을 지언정 남으로 하여금 공교롭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고 하였으니 이 또한 이를 두고 말한 것이다. 내가 평생토록 행하여 四方의 선비들과 함께 한 즉 사람을 구제하고 萬物을 이롭게 하는 한 귀퉁이에 반드시 조금이라도 보탬이 없지는 않겠다고 하였다.

明나라 成化 甲辰歲(1484年) 仲夏 既望에 荆南의 한 사람이 적는다.

成書한 年代에 대하여 王好古는 自序에서 “至大改元秋七月”이라 하였다. 이에 대하여 清대의 汪日楨은 “唯此事難知는 自序題至大元年하니 則上距金亡已七十餘年이니 豈海藏享上壽至武宗時猶存耶아 抑至大當是至元刊本之訛耶아 並書以俟考라(오직 『此事難知』는 至大元年(1308年)이라고 하였으니 이때는 金나라가 멸망한지 七十餘年이 되었으니 어찌 海藏先生이 武宗때까지 살아 계셨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至大는 그 당시인 至元刊本の 錯誤인 것인가? 이것을 記錄하여 다른 學者들이 考察하여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고 주장하였으나 잘못된 주장이라고 하였다.

한때 이 책의 著者를 李東垣이라고 잘못 전해졌는데 예를 들면 荆南의 어떤 사람이 明成化甲辰(1484年)에 책을 지은 跋에 “東垣先生醫書一帙을 予府已鈔梓하여 傳於世矣라 今又得一書하니 亦東垣治疾之法이니 名曰此事難知라하니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四庫全書總目』에 “元王好古撰”²⁰⁾이라고 斷言하였고, 또한 “今本東垣十書는 竟屬之某하니 則非矣라”²¹⁾고 하였으므로 『此事難知』는 王好古의 著書라고 하여야 한다. 이 책은 上下 두 권으로 되어 있고 醫論이 106篇이 記載되어 있으며 書名의 앞부분에 ‘東垣先生’이란 글이 적혀있다. 따라서 이 책은 王好古가 李東垣의 議論을 수집하여 成書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王好古가 自序에서 “予讀醫書幾十載矣에 所仰慕者는

仲景一書爲尤焉이라 然이나 讀之未易洞達其趣하니 欲得一師指之컨대 遍國中無有能知者하야 寤而思하고 寐而思하야 天其勤恤하야 俾我李公明之授予하고 及所不傳之妙하니 旬儲月積에 浸就編帙하야 一語一言이 美無可狀이오 始而終之하고 終而始之하니 即無端之圓壁也라”라고 하였다. 이 책에는 經絡, 臟腑, 病理, 病源 및 關聯된 臨床辨證, 治法 등 내용들이 包含되어 있고, 특히 傷寒六經證治에 대하여 詳細하게 論述하였고 견해가 독특하며 후세에 『傷寒論』을 공부하는데 重要的 參考價値가 있다. 또한 이 책은 『醫壘元戎』과 함께 失傳된 李杲의 『傷寒會要』에서 傷寒을 論治한 精華部分을 保存하였으므로 東垣學說을 연구하는데 重要的 參考書가 된다.

『歷代史志書目著錄醫籍匯考』에서는 『四庫全書簡明目錄』²²⁾(清乾隆47年 1782年 高宗勅撰)를 인용하여 “皆闡明李杲之緒論이로대 於傷寒證治尤詳이라 杲傷寒會要久已散佚하니 惟賴此尙存其梗概라”고 하여 失傳된 李杲의 『傷寒會要』를 보충하여 만들어 李杲의 傷寒을 論治한 精華部分을 보존하였으므로 東垣學說을 연구하는데 重要的 參考書가 된다고 하였다.

현재 알고 있는 版本으로는 鮑毓城이 校注한 『此事難知』²³⁾에서는 至大元年인 1308년에 刊行되어, 明成化 1484年 刊本이 있고, 嘉慶 丙辰年 1556年 『古今醫統正脈全書』에 실린 것이 있고, 嘉慶 己丑年 1529年 『東垣十書』에 실린 것이 있다고 하였다.

5. 『海藏癩論萃英』

1卷으로 되어 있는데 成書된 年代는 確실치 못하다. 元·杜思敬이 編纂한 『濟生拔粹』²⁴⁾에서 처음으로 나타났다. 이 책은 小兒癩疹을 專門적으로 論述한 著書이고 錢乙, 東垣, 潔古 등의 癩疹에 관한 論述들을 수집하여 癩疹多熱證은 六經辨證方法으로 치료해야

22) 李茂如, 胡天福, 李若鈞 編著. 歷代史志書目著錄醫籍匯考 - 『四庫全書簡明目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677.

23) 王好古著. 鮑毓城 校注. 于伯海. 輯. 傷寒金匱溫病名著集成·此事難知.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134.

24) 杜思敬. 濟生拔粹. 湖南電子音像出版社. 中華醫典(簡體版)[CD-ROM]. 長沙.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3.

20) 永瑤. 四庫全書總目. 北京. 中華書局. 1965. p.870.

21) 永瑤. 四庫全書總目. 北京. 中華書局. 1965. p.870.

한다고 제기하였다. 小兒癩疹의 치료에 대하여 참고할 만한 論述들이 많다.

II. 結 論

王好古는 字가 進之이고 號는 汝莊이고, 晚號는 海藏老人으로 趙州(古趙라고도 하며, 지금의 河北省 趙縣이다)사람이다. 대략 1230年頃에 出生하여 1308年頃에 卒하였다고 추정된다.

王好古는 자신이 『湯液本草』의 序에서 『醫壘元戎』, 『陰證略例』, 『痲論萃英』, 『錢氏補遺』 등 책을 지었다고 하였다. 후세의 많은 學者들은 이외에도 『醫家大法』 3卷, 『仲景詳辨活人節要歌』, 『斑疹論』, 『光明論』, 『標本論』, 『傷寒辨惑論』, 『活人節要歌括』, 『三備集』, 『小兒吊論』, 『辨守眞眞』, 『十二經藥圖解』, 『仲景一集』, 『湯液大法』 4卷 등도 著述하였다고 하나 現存하는 것은 『陰證略例』, 『醫壘元戎』, 『此事難知』, 『湯液本草』, 『海藏痲論萃英』 등이고 나머지는 모두 散佚되었다.

현존하는 저서들의 發刊年代에 대하여 汪曰楨은 『陰證略例·跋』에서 自序는 壬辰歲(1232年)에 記錄하였으니 金나라 哀宗 天興元年(1232年)이니 즉 元나라 太宗四年이라고 하였고, 『醫壘元戎』은 1237年에, 『湯液本草』는 1248年에, 『此事難知』는 至元紀年인 1264年에 發刊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王好古는 『此事難知』에서만 至大元年이라는 年號를 사용하였고, 나머지 書籍의 序文에서 모두 干支로만 年대를 표시하였다. 著者が 그 當時의 年號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記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과 대부분의 醫師들의 著作이 末년에 많이 著述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此事難知』를 제외한 다른 書籍들의 發刊年代가 汪曰楨이 주장한 것보다 60년을 더하여, 十二經을 綱領으로 傷寒과 雜病에 대하여 言及한 『醫壘元戎』은 1291年, 傷寒陰證의 危害性과 證治를 闡명한 『陰證略例』는 1292年, 藥物의 性味와 歸經 그리고 五味의 補虛瀉實法과 制方相宜 및 飲食調養 등을 研究한 『湯液本草』와 經絡, 臟腑, 病理, 病源 및 臨床辨證, 治法을 言及한 『此事難知』는 1308年에 發刊되었다고 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思料

된다.

그러나 이러한 主張을 確定하기 위해서는 王好古의 生卒年代에 대한 正確한 研究가 隨伴되어야 할 것이므로 推後에는 이러한 問題에 대하여 더욱 精密한 研究를 必要로 한다.

參考文獻

「논문」

1. 趙炳日, 金容辰. 王好古의 藥物 및 傷寒理論에 대한 研究. 韓國醫史學會誌. 2007. Vol.20. NO.1. 2007.
2. 趙炳日, 金容辰. 王好古의 陰證學說에 대한 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7. 20-2號 通卷 37號. 2007.
3. 趙炳日. 陰證略例에 대한 研究. 大田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8.

「단행본」

1. 柯韻伯. 傷寒論翼. 于伯海. 傷寒金匱溫病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363.
2.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397.
3. 陳邦賢. 中國醫學史. 臺灣. 商務印書館. 1937. p. 86.
4. 徐大椿. 古今醫統大全 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34.
5. 永瑤. 四庫全書總目. 北京. 中華書局. 1965. p.870.
6. 永瑤. 四庫全書總目. 北京. 中華書局. 1965. p.870.
7. 王好古 著. 大田大學校韓醫科大學第9期卒業準備委員會 譯. 國譯 湯液本草. 서울. 大星文化社. 1996.
8. 王好古 著. 大田大學校韓醫科大學第10期卒業準備委員會 譯. 國譯 此事難知. 서울. 大星文化社. 1997.
9. 王好古 著. 大田大學校韓醫科大學第11期卒業準備委員會 譯. 醫壘元戎. 서울. 醫聖堂. 1998.
10. 王好古著. 朱廣仁 校注. 陰證略例. 于伯海. 傷寒

- 金匱溫病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172.
11. 王好古著. 鮑毓城 校注. 此事難知. 于伯海. 傷寒金匱溫病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134.
 12. 李茂如, 胡天福, 李若鈞 編著. 歷代史志書目著錄醫籍匯考-補遼金元史.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174.
 13. 李茂如, 胡天福, 李若鈞 編著. 歷代史志書目著錄醫籍匯考-補元史.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180.
 14. 李茂如, 胡天福, 李若鈞 編著. 歷代史志書目著錄醫籍匯考-四庫全書簡明目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677.
 15. 李時珍. 圖解本草綱目 上冊. 台北. 文光圖書有限公司. 1968. p.6.

「기타」

1. 杜思敬. 濟生拔粹. 湖南電子音像出版社. 中華醫典(簡體版)[CD-ROM]. 長沙.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3.